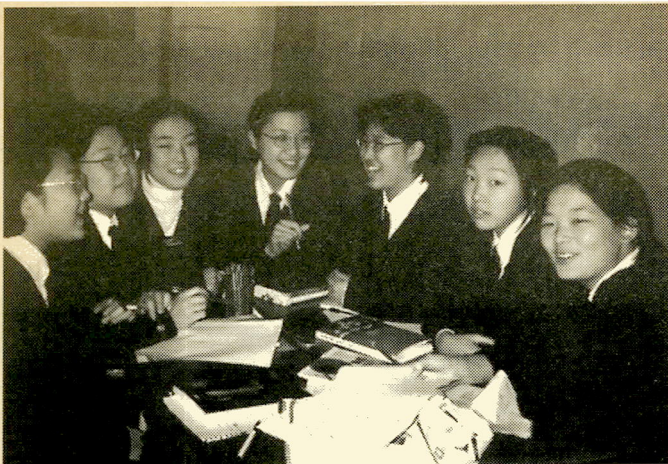




○여고 2학년 5반 학생 7명은 서태지 악마설과 관련 설문조사, 자료수집, 분석 등을 통해 리포트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번 소동이 서태지 음악의 강력한 리듬과 사회 비판적인 가사가 청소년들의 압박감, 불안심리와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과격하고 광적인’ 음악만 듣지 말고 조용하고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주는 음악도 들으라는 충고와 함께.

서태지 악마설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마지막 세번째인 청소년들의 억압심리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악마소동과 관련해서 ○여고 2학년 5반 학생 7명이 작문시간에 제출한 리포트는 청소년들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들은 악마소동이 일어난 직후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거리 설문

소문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우리시대의 대중문화와 스타에 대해, 그리고 그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10대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출판집단, 현실문화연구의 일련의 신세대시리즈나 몇몇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서 그 노력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김진석(인하대 철학과) 교수는 “우리시대의 대중문화는 끝없이 스타를 만들어 놓으면서 동시에 어느새 그 스타를 폐기처분하는 잡음을 내고 있

소동 터지자 학생들 스스로 토론 마련하기도

“〈교실이데아〉는 아무도 관심갖지 않는 우리문제 날카롭게 지적”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일단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는 오늘날의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가사가 너무 극단적이고 과장이 심하고, 단정적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던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며 서태지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전부터 있어 왔지만 입시철이 되면서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대한 중압감에 짓눌려 있고 심지어 몇몇 학생은 자살을 하기도 했다. 또한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아무개가...’ ‘2등이 1등을 죽이고...’ 등으로 시작되는 귀신이야기마저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실 이데아’ 중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 주겠어. 니 옆에 앉아 있는 그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가 있어〉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서태지의 ‘내리치고, 깨부수는 듯 강력한 비트의 트래쉬 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혹시 귀신이 나 악마, 사탄과 연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사고의 고리를 연결시켰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번 악마소동에 대한 진정한 정답은 없다. 소문은 결국

다. 그러나 대중과 대중문화는 잡음을 내지만 주체로서 내지는 않는다”며 대중과 대중문화의 사이에 일고 있는 잡음은 매체가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소동도 방송의 참여로 파장이 커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중스타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 시작돼야

서울대 신문학과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형곤 씨의 “부모세대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현시대 스타들의 태도와 이미지를 지지함으로써 이들 청소년 하위집단들은 더욱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들이 스타를 접하는 행위는 단순하게 매스미디어의 수동적인 수용이라 할수 없는 종교적인 제의 즉 컬트적인 요소가 있다”는 분석과 “대중이 문화의 주역인 10대들은 자신의 감수성을 강력하게 제압하고 폭력적으로 군림하는 자를 자신의 대변인으로 옹립한다. 그런 자신의 대변인이 자신들의 정서를 배반했을 때 가혹한 심판을 내리려 한다”는 음악평론가 강현 씨의 분석은 우리시대 청소년들과 그들의 대중스타와의 관계가 결코 ‘오빠부대’로 뭉뚱그릴 수 있는 단순한 관계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황금희 기자〉